



4월 벚꽃길 발로 뛰며 '따뜻한 봄' 만끽

을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9일 막을 올리며 군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힘찬 출발의 닻을 올렸다.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군산시체육회, 전북육상경기연맹은 2017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대표 마라톤대회 '자리매김'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지난 2012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공인 코스'로 인증 받은 후 6년 차에 접어들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대회로 자리매김 했다.

국내 6개 메이저 대회중 후발주자로 시작한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경진되는 좋은 기록과 매년 1만명 이상의 참여자가 함께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마라톤 대회 추세에 발맞춰 하프코스를 추가, 국내외의 우수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마라톤 동호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경기대회 국비지원' 공모에서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30개 국제대회가 신청한 가운데 전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뽑혀 3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올해 총 1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대회를 치르게 돼 국제대회 위상에 걸맞은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회에는 모두 1만2천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으며 에티오피아의 다메사 수와 차라 선수가 2시간11분43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에는 국내외의 엘리트 선수를 비롯한 1만2천여명의 인원이 풀코스, 하프, 10km, 5km 총 4개의 종목에 참여한다.

대회 손님맞이 준비 '완료'

군산시는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친절, 질서, 청결 시민문화운동을 펼쳐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대외적 홍보를 통해 시민일체감을 조성한다. 또한 시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실무회의, 각 관과소와 진행한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방문하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도시미관 숙부시설 점검 최선

군산시는 2017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가족, 경기관람을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깨끗한 가로환경, 안전한 숙식제공 등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월명종합경기장, 금강변 등 주경기장 도색 및 시설상대 등 대회 준비사항을 일일이 점검하고 간선도로 및 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 일제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했다.

관내 7백83개소의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화된 접객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고객만족 접객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만전

시는 군산지방경찰서, 소방재난본부, 민간의료봉사단 등 응급구조체계를 갖춰 이번 대회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건기관뿐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 104명의 구급별 의료 인력과 이동진료 차량을 비롯한 구급차량 17대, 의료지원에 필요한 의료약품 등을 사전에 확보했으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완벽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

새만금국제마라톤을 치르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단연 시민들의 참여다. 1천여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마라톤대회의 성료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서며 수많은 관내 자생단체 회원들은 자발적인 환경정비에 나서 군산을 찾는 마라토너와 관광객들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 42.195m에서 만나는 군산의 명소들



▲철새조망대

전국 최초이자 국내 최고의 매머드급 360도 회전식 조망센터로 금강일대의 철새를 쉽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조망시설 외에도 조류공원과 철새 신체 탐험관, 부화 체험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족 단위 생태교육장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채만식 문학관

일제 강점기의 세태를 풍자한 '탁류'의 작가 백룡 채만식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곳. 실제로 재현된 채만식 선생의 행동과 목소리를 경험하고 소설속의 배경과 인물들을 통해 선생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다. 채만식 선생의 작품은 소설 87편, 희곡 28편, 산문 평론 수필 등 345편에 이른다.



마라톤 코스, 역사 문화를 느낄수 있어

대회코스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군산의 신도시권과 근대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원도심을 지나 금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강하구둑, 철새조망대, 나포십자돌비를 돌아 월명종합경기장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이 코스는 도로가 평평하고 굴곡이 적은 최적의 코스로 엘리트 선수들과 동호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 왔으며 시에서는 올해도 대회 코스구간의 정비

를 통해 마라토너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스는 군산의 유명 관광지들을 경유하여 하나의 관광코스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달릴 수 있으며 역사와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레이스를 편안하게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행복한 도전이 있는 축제의 장”

2017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일 시 : 2017. 4. 9(일) 08:00

장 소 : 군산월명종합경기장

국제공인대회 : Full, Half, 10km, 5km
International Certified Marathon Race
42.195km, 21.0975km, 10km, 5km

참가신청기간 : 2017. 1. 15 ~ 3. 20(65일간)
마라톤사무국 : 063)465-7731, 02)418-7881

www.smgmara.com
www.smgmara.org

| 주 최 : 대한육상연맹, 군산시 | 주 관 : 전라북도육상연맹, 군산시체육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시육상연맹